

“어떤 이론·사상도 맹신하지 말라”

-틱낫한 선사가 제시하는 참여불교의 14가지 계율

해의불교칼럼

틱낫한(一行·사진) 스님은 베트남 출신 평화운동가, 시인, 저술가로 현재 프랑스의 플렘 빌리지를 중심으로 국제난민구조 등 흥법활동 중이다.

월남전 당시 청년사회봉사학원을 설립, 구호 및 교육활동 이후 미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 코넬대·컬럼비아대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미국의 월남전 중단을 촉구했다.

반전운동의 동료이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를 노벨 평화상수상자로 추천했으며, 월남전종식 파리평화회의에 불교대표로 참석했다.

좌익불교, 인간불교, 입세불교로도 변역되는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란 신조어를 만든 그는 사회, 정치,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중생구제가 수행의 일부라 주장, 80년대 가톨릭 내에 논란이 있던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과 대비된다.

참여불교는 세계불교평화회의,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등의 초석이 됐다. 그는 저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계율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어떠한 교의나 이론, 사상도 우상화하여 맹신하지 말라. 불교 또한 하나의 지침이자 방편이되 절대 진리는 아니다.

2. 지식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생각하지 말라. 진리란 지식개념이 아니라 생존현실이다. 편견을 버리고 집착 없는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맞으라.



3. 권위, 위협, 금전, 선전, 세뇌교육 등으로 자신의 견해를 강제주입하려 말라. 또한 진실한 대화로써 우리 이웃의 관심적 언동과 편향을 버리도록 도우라.

웃음과 나누라.

6. 분노와 증오에 배어들지 말며, 나의 의식 속에 어둠대는 그 그림자마저 닦아내라.

7. 당면 정황과 혼돈 가운데 자기실상의 위험을 경계하라. 참선수행을 장진하여 나의 안팎을 치유할 요소들과 관계를 유지하라.

8. 불협화음이나 집단분열을 조정하지 말라. 상호차이의 화해 및 갈등해결을 위해 진력하라.

9. 이웃을 기만하며 자기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불확실한 정보의 유포와 허튼 비방을 말라. 단, 불의를 보면 자기안전에 개입하지 말고 과감히 성토향하라.

10. 불교계를 사리사욕에 오남용하거나 정치 집단화 말라. 탄압과 불의에 저항하는 불교인의 사명감을 건지하되, 정치적 개입을 초월하여 상황변화를 모색하라.

11. 인간과 자연에 유해한 생업, 타인의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 자비 공덕을 실현하는 방편의 생업을 찾으라.

12. 나도 살생을 말고 이웃의 살생도 방치하지 말라. 생명존중과 전쟁방지에 있는 힘을 다하라.

13. 이웃의 소유를 바르게 인정하라. 단 지구촌의 어떠한 생명체에도 고통을 가하여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14. 내 몸을 고이 여겨 함부로 말라. 재가불자들은 사람과 새 생명에 대해 무책임한 성적 표현을 말며, 남의 행복을 비활진대 남의 권리와 의무 또한 존중하라.

출처: 저서 ‘더불어 있음 Interbeing’ 편역:성휴 스님

월드 ★ 불심도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佛心으로 인종 편견 극복한 불제사

그는 나와 적이라는 대립을 벗어난 중도를 조용히 설하고, 또한 내가 천사가 되고자 남을 악마로 만드는 극단, 여기는 천당이고 거기는 지옥이란 양분법적인 개념을 넘어서 밀려내는 대법문을 펼친 것이다.

타이거 우즈는 8세에 국제유티미스트 청소년골프대회에서 첫 우승한 이래 15세 때까지 무려 6연승한 후 16세에 프로에 입문, 1996년부터 본격적인 프로 골퍼가 됐다.

이듬해 그는 매스터즈에서 12살이던 경이적 기록으로 우승, 21세에 공식기록상 세계최연소 최우수골퍼가 됐다. 그런데 특히 그가 2000년 PGA에서 우승하자, 골퍼가 거의 국기인 미국, 좀 더 정확하게 일부 백인

백인 ‘선민의식’의 본색이다. 또 다른 실례를 보자. 테니스도 백인귀족 스포츠라 해서 유색인종에 대한 눈에 안 보이는 차단막이 있었는데 70~80년대에 대서건이 터졌다. 이븐스 굴라공이라는 호주 원주민 아가씨가 워블던 타이틀 두 번을 포함,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14회나 휩쓴 것이다.

떠들이 양털같이 원주민의 깃털이 워블던 챔피언이라... 일부 선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테니스코트에 출입이 금지되어 담장 밖에서 숨어보던 야만인 계집 주재... 그들은 거의 집단히스테리에 이르렀다. 한 때 그들의 눈에 ‘복음의 은총을 못 받은 야만인’들은 캥거

를 비아냥대는 건 기본인 즉, 타이거 우즈라고 예외일까?

앞서 언급했듯, ‘불자는 스포츠에 증오감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담긴 깊은 속뜻이 있을까? 그 아비함이 오죽하면 미국 프로야구에 애써 입문한 박찬호 선수가 경기 중 이단연타를 내질렀겠는가? 참고 참는다. 그런데도 졸음 건드리면 박치기로 킥던 뭐든 그대로 받아버린다. 이것이 곧 한국인 특유의 투혼이자, 우리나라가 온갖 역사적 시련에도 아직껏 살아남은 이유다.

또한 IMF사태로 전 국민이 진장을 헤맬 때 박세리 선수는 물에 빠진 공을 찾아 마치 미꾸라지 잡듯이 눈에 들어가듯 대담 바지단을 걸어붙였다. 그녀를 시골 장터에 잘못 나타난 촌닭을 보듯 내리깔려던 그들은 그것인 투혼에 기가 죽고, 외국 언론도 한국이 그처럼 과감히 IMF 진장에서 벗어나리라 격찬했다. 바로 이런 걸 일러, 손 좀 봐준다(I will teach you)고 하는바, 그들은 한국 스포츠의 간판스타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던져 후배 선수들이 이국땅에서 못 붙을을 안 보도록 미리 본때를 보여준 선구자다.

박찬호의 열차기, 박세리의 미꾸라지 잡이... 그 모습대로 기업등장을 세워줄만한 일대패거가 아니랄까?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하나있으니, 스포츠와 기업은 물론 종교 간에도 페어플레이란 위선적인 말장난이 아닌 깨끗한 상호 실천일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불제사 타이거 우즈의 담담한 평상심에 대해 일부 선민들은 겉으로 짐짓 태연한 채하면서 속속으로 진자 왕 짜증에 날는지도 모를 일이다.(계속)

성휴 스님

PGA 챔피언 등극에 일부 백인 사회 발끈 “스포츠에 증오감 끌어들이지 말아야”

사회는 은근히 발끈했다.

그들은 골퍼를 우리가 바둑을 보듯 치열한 두뇌싸움으로 여기는 터라, 유색인 청년의 챔피언 등극은 눈앞이 휘집힐 노릇이었다. 골프라면 잭 니클로스, 아놀드 파머 같은 백인들의 파티가 아닌가? 근데 도대체 이게 웬 웃기는 꼴이람? 그들은 마치 마구간에서 치박혀 살아야 할 캥뎀이 노예가 백인 나라인 안양으로 기어든 양 온갖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인종감등은 미식축구도 마찬가지라서 얼마 전까지도 팀의 작전 참모 격인 쿼터백을 흑인이 맡는 경우는 거의 톱뉴스 감이었다. 이는 유색인이라면 그저 분명한 네 다리나 쓰지, 무슨 두뇌를 쓰겠냐는 식의 비열한 작태며, 이른바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 같잖은 종교적 독선이자 얼

루는커녕 주머니들 쥐어만 못한 하등 동물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들은 선민들이 옮겨온 질병과 착취, 그리고 1800년경부터 1930년대까지 자행된 그자들의 대량살육으로 약 90%가 멸종했다는 연구 보고 서가 있다(www.sheppardsoftware.com-Australian Aborigines).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단지 집중학살이었던, 그들의 원주민 학살은 일제기를 훌쩍 넘긴 장기 반복적 인간사냥이요, 전자의 만행은 너무 잘 알려져, 후자의 잔학행위는 너무 덜 알려져 왔다는 차이뿐이다.

그래서래 발레나 오페라, 그리고 스키, 수영 등에서 유색인종, 특히 아프리카계를 찾아보거든 그다지 쉽지 않다. 게다가 상당수 백인관중들이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유색인 선수들

싱가포르에 불교박물관 설립

불교관련 개인 소장품의 종합전시장이 싱가포르의 네이수에당은 11월 10일 국제 규모의 불교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1억 싱가포르 달러의 기금조성을 완료, 2100년도 개관을 목표로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금년 114세 된 중국 사천성의 한림자가 기증한 희귀소장품들을 포함, 중국 당조의 촉대 및 명조의 승복과

유적 와발 등 각종 불교유품 및 금 등 보석공예품이 종파나 지역에 무관하게 전시될 동 박물관의 설립계획은 전후 불교문화재 복원 및 예술품수집에 매진해 온 운위당에 의해 추진됐다. 출처: 아시아 뉴스 채널

런던서 비구니스님 수계식

11월 8일 런던불교센터에서는 두 비구니스님의 수계식이 거행됐다.

출처: 아미타 트러스트



This man stole nothing from me

-이 사람은 나한테서 훔쳐간 것이 없소

A jolly good teacher A thief with a sharp knife sneaked into an old monk's room and whispered, "Money or life?" The monk murmured, "Don't disturb me! Take the money out of that drawer." And he kept reading the sutra, which made the thief deady that day. While he was doing his business anyway, the monk muttered, "Leave some for me to pay my taxes tomorrow." "Ah, sure, venerable." The thief hurried to leave and suddenly the monk shouted, "You take my money, and do not even thank me! That's not polite!" The thief was caught soon and taken to the monks for witness, who said, "This man stole nothing from me. I gave him some expense, and he even thanked me for it." Upon his release from prison, he became a disciple of the monk and years later, attained the Enlightenment.

쌘뽕하고 멋진 스승님 날카로운 칼을 든 도둑이 노스님 방에 기어들어 낮게 속삭였다. "돈 내놓라? 죽을래?" 스님이 중얼했다. "귀찮게 말고 서랍에서 꺼내가라." 그리곤 졸골 열불만 의우니 도둑은 놀라 까부러릴 지경이었다. 그때도 어쨌거나 제 불 일을 보는데 스님이 구시랑했다. "몇 푼 남겨둬, 내일 세금 내야 돼." "아, 예, 스님." 도둑이 허겁지겁 튀러는데 스님이 백 호통을 쳤다. "내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단 말도 안 하나? 이 때나 없는 놈아!" 이내 붙잡힌 도둑이 증언대질하 끌려오자 스님이 말했다. "이 사람은 나한테서 훔쳐간 거 없소. 내가 용돈 좀 줬더니 인사까지 잘하고 갔지요." 그 후 형기를 마친 도둑은 공장 스님의 제자가 되어 몇 년 뒤에 대각에 이르렀다. 변안:성휴 스님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며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중증(中症), 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 삶은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깨끗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달인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린다. 농축액은 60로 단위로 포장한다/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당뇨병 한방(韓方)으로 치료한다.

당뇨병을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는 중정한의원 왕중권 원장

당뇨병 아시죠? 이것은 한의학에서 소갈증이라 한다. 주로 많이 마르며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소변을 수도 없이 자주 보는 병이다. 한의학에서 약 2300년 전에 당뇨병의 임상 특징인 삼다(三多) 즉 다뇨(多尿)로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소변보고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이 기록되어 있다. 또 소갈 병 환자는 오래되면 귀도 잘못 듣고 눈도 잘 안보게 된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이 당뇨병의 합병증들이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의 원인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절제한 식생활 그리고 정신적 과로 유전등과 연관하고 있다. 치료 방법에 있어서 상(上) 중(中) 하(下) 세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급성으로 오는 당뇨병은 한의학으로 치료 잘 된다. 시간이 오래 경과된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 치료에 비중을 두며 장기적으로 한의학 치료의 사이오넬 운동등으로 임상에서 이미 많은 효과를 보였다. 당뇨병은 하나의 만성질환 이므로 짧은 시일 내 어떤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되고 음식에 있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된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혈당과 요당검사를 받아야 된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